

A Study on the Practice and Characteristics of Women in the Early Buddhism: Focusing on *Therīgathā*

Jungeun Kwak^{*}

Dongguk University

Abstract

[PURPOSE] Modern society is still not free from problems of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value and meaning of Buddhist practice in a society of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through the practice of Buddhist nuns in the age of Buddha.

[CONTENTS] Women's renunciation took place in the background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Women who entered the Buddhist priesthood had to face the double whammy of difficulties as women. Female monks in 『Therīgāthā』 achieved results of ascetic practices in personal and social contexts. First, they gained insight into the pain of a sick, dying, and decaying body and experienced liberation. And even in the social context, female practitioners freed themselves from social oppression such as gender stereotypes. Furthermore, she tried to free other women from domestic slavery and grew into a social being, playing the role of a leader in the strict hierarchy of status and family system.

[RESULTS] Examining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female practitioners in the personal and social context of 『Therīgāthā』. Through the women and ascetic practices of the Buddha era, the direction modern practitioners should move forward is sought.

[KEY WORDS] Therīgāthā, female renunciation, female asceticism, bhikkhuni, early buddhism

* Corresponding to Jungeun Kwak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Seon Studies, Dongguk University)

E-mail : cekwak1978@gmail.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초기불교시대 여성의 수행과 특징에 대한 연구: 『테리가타(Therīgāthā)』를 중심으로

곽정은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대학원생

요 약

[연구 목적] 초기불교는 차별과 혐오로 가득한 시대상 속에서 인간의 평등함을 근본 입장으로 유지하였다. 숙명적인 계급을 떠나 스스로 열반을 추구하는 수행은 인도 역사 속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현대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본 연구는 붓다의 시대, 여성 출가자들의 수행모습을 통해, 차별과 억압의 사회에서 불교수행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붓다의 시대, 여성의 출가는 사회적 차별과 억압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출가 후 수행의 과정에서도 여성 출가자는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이라는 이중고에 맞닥뜨려야만 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 출가자는 팔정도, 부정관, 사념처, 오근, 오력, 칠각지 등 다양한 수행과 노력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했다. 『테리가타』 속의 여성 출가자들은 개인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에서 수행의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병들고 죽고 부패하는 육체의 고통을 통찰하였으며 자신의 몸에 부여되는 시각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였다. 남성을 유혹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존재로 거듭났다.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서도, 여성 수행자들은 성별 고정관념 등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켰다. 더 나아가 다른 여성들을 가정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신분 및 가족 체계라는 엄한 위계 속에서도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존재로 성장했다.

[결론] 『테리가타』를 통해 나타나는 여성 수행자들의 개인적, 사회적 맥락에서 수행의 의미와 그 특징을 살핀다. 붓다시대의 여성과 수행을 통해, 현대의 수행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주제어] 테리가타, 여성 출가, 여성 수행, 비구니, 초기불교

I. 서 론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고통을 느끼고 경험한다. 고제(苦諦)로 시작하여 도제(道諦)로 마무리되는 사성제(四聖諦)를 핵심 교리로 하는 불교는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종교이며 철학이다. 그런데 생노병사(生老病死)라는 생득적 고통과 함께, 인간에게는 사회적 존재로서 부가되는 고통도 함께 존재한다. 지배적인 집단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불공평한 대우, 즉 차별이 그것이다.

이러한 차별은 사회 구조 내에서 승인되고 이념에 의해 정당화된다(Krieger, 1999: 301). 붓다가 태어났을 당시, 인도 사회는 이러한 차별과 혐오로 가득했다. 차별은 제도와 집단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으며, 도처에서 일어나는 신분제도와 착취, 그리고 성적 학대는 붓다를 깊은 비탄에 빠지게 했다(Badge, 2014: 34). 그러나 붓다는 평등과 무차별의 원칙을 바탕으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전했다. 카스트나 성별 등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괴로움으로부터의 해방과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퍼뜨렸던 것이다(Grünhagen, 2011: 104). 이는 당시 사회로서는 획기적인 주장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않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성차별은 지나간 과거의 것이라는 문화적 메시지가 퍼져있는 반면에, 데이터가 보여주는 차별의 양상은 여전히 여성의 삶에 만연해 있다(Fischer & Holz, 2010: 297).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성차별과 관련된 담론은 많은 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본고는 초기불교 경전의 내용을 통해 붓다 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살피고자 한다. 개인으로서 맞닥뜨릴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억압과 차별의 상황을 타개한 방법으로서 수행의 가치와 구체적 의의를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현대 사회보다 사회적 억압과 불평등이 더욱 강력했던 기원전 시대, 붓다의 제자로 알려진 여성 출가자들의 수행의 장면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초기경전을 통해 여성 수행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테리가타(Therīgāthā)』에 나타난 여성 출가자들의 수행과 결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테리가타』에 세부적으로 접근하여 사회적 억압과 고통 속에서 이뤄낸 수행이 어떤 의미와 성과를 이루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초기불교의 여성 출가자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리고 『테리가타』를 직접 연구주제로 삼은 경우도, 특정 출가자들의 모습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거나(Song, 2021), 개괄적인 정리를 한 연구(Won, 2014; Lee, 2012)들이 주를 이룬다. 본 연구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테리가타』를 전체적으로 살피고, 여성 출가자들의 수행과 자취가 현시대에 시사할 수 있는 의의에 접근하고자 한다.

II. 초기불교의 여성과 수행-여성 수행의 역사적 배경

성적 차별, 신분 차별 등 사회적 억압이 강력한 형태로 존재했던 시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 속에서 여성의 수행이 이뤄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불교 이전의 시대와 불교 이후의 시대에 변화가 있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불교 이전의 시대, 인도에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았으며 존중이란 찾아보기 어렵다. 딸은 부모에게 불명예스러운 존재처럼 여겨졌고, 딸을 출산하면 그것은 고통스런 경험이 되었다(Horner, 1930: 1). 여성은 한 명의 온전한 인간이기보다는 남성 중심 체제를 위해 필요한 도구로 인식되었고,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은 천상에도 태어나지 못한다는 믿음이 지배적이었다(Hong, 2020: 38). 이와 같은 믿음은 종교적 관습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 종교적 의례는 오직 남성만이 주관할 수 있었고, 여성은 의례에 참여할 수도 없었다. 여성은 남성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 했고, 여성은 모든 권리를 그 집안의 남성에게 맡기고 예측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Jeon, 2016: 111). 이처럼 고대 인도사회에서 여성이란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간주된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불교 시대에 들어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다. 호너(Horner)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일부 영역이기는 했으나, 여성의 가정 안에서의 위치, 사회적 위치, 종교적 위치는 전반적으로 향상되기 시작했다. 불교의 가르침이 남성들에게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여성의 헌신과 자기 희생, 용기와 인내에 의한 일상의 지속적인 모습들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여성이라는 존재를 남성보다 동물에 더 가까운 존재로 보려는 것도 멈추게 되었다. 여성은 지성과 행동의 양쪽 측면에서 훌륭한 본보기들을 보여주었고, 따라서 여성은 사회에서 건설적인 힘을 갖고 있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다.”(Horner, 1930: 2)

불교의 발생 이후, 인도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여성의 출가와 수행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도기가 마련된 것이다. 과도기의 특성상, 여성의 출가와 이를 유지하는 수행과정이 순조로울 수만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여성의 출가가 시작부터 반대에 부딪혔다는 사실이다. 『앙굿따라니까야(Āṅguttara nikāya)』의 『고따미 경(Gotami-sutta)』은 마하빠자빠띠 고따미(Mahāpajāpati gotamī)의 여성 출가 요청에 붓다가 세 번 거절하고, 팔경계(八敬法)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출가를 허락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 경은 ‘구족계를 받은 지 백 년이 된 비구니라 하여도 그날 구족계를 받은 비구에게 절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합장하고 경의를 표하라’, ‘그 어떤 비구니도 비구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해서는 안된다’ 등의 내용들을 포함한다(Daelim, 2007: 242-243; AN. IV. 277). 또한 여자가 출가하면 청정범행의 유지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정법 오백년 감소설도 같은 경에 등장한다.

“아난다여, 만일 여자가 집을 나와 여래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지 않으면 청정법행은 오래 머물 것이고 정법은 천년을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자도 집을 나와 여래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청정법행은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고 정법은 오백년 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Daelim, 2007: 246; AN. IV. 278)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설명들이 나타난다. 여인 출가의 배척은 비구니와 비구 교단 사이가 어떤 이유로든 별로 화목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는 분석(Jeon, 1986: 340), 고따미는 평등을 위해 자신의 성(sex)을 내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은 평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지지 못했다는 분석(Horner, 1930: 121), 붓다는 여성의 깨달음에 대한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았으나 남성 중심 사회의 위계질서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개혁을 원하지는 않았다는 분석(Anand & Behura, 2016: 72-73) 등이 있다. 비구니 상가(僧伽)의 발생 이후, 붓다는 비구니들에게는 각자의 자질에 맞는 전문가가 되기를 요구하기도 하고(Gross, Ok trans., 1992: 88) 수행을 장려하는 등, 여성의 출가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출가와 수행이 어려움 속에서 시작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여성은 출가 후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물리적인 어려움도 컸다. 출가 생활은 집을 떠나 홀로 유행하는 삶의 형태였으니, 이것이 육체적으로 남성에 비해 약한 여성에게 안락하거나 쉬운 선택일 리 없었다. 하지만 단지 물리적 어려움만은 아니었다. 『상윳따니까야(Saṃyutta Nikāya)』의 「비구니 상윳따(Bhikkhuni-saṃyutta)」에는 마라 빠빠만(Māra pāpiman)이 끼사 고따미(Kisā gotami)의 수행을 방해하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다. 그는 끼사 고따미에게 말한다. “아들 잃고 눈물 가득한 얼굴로 왜 그대 홀로 앉아있는가? 숲속 깊숙이 혼자 들어와서는 그대 남정네를 찾고 있는가?”(Kakmook, 2009: 466; SN. I. 130)라고 조롱한다. 마라는 여성을 온전한 수행자가 아닌, 남성과 뗄 수 없는 의존적 존재로 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구는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는 여성, 출산을 포기한 여성으로서의 수행자가 겪었을 편견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붓다 사후에 여성의 깨달음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붓다 사후에 교단이 가부장화 되면서 여성의 몸으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다섯 가지 장애가 있다는 여인오장설(女人五障設) 및 여성의 몸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여성불성불론(女性不成佛論)으로 발전한 것(Ok, 2015: 104)이 그 예이다.

III. 『테리가타』에 드러난 여성 수행의 결과

초기불교의 시대, 여성 출가자들의 수행과 삶을 볼 수 있는 주요 문헌으로 『테리가타』를 꼽을 수 있다. 『테리가타』는 73개의 시와 522개의 절로 된 비구니들의 계송을 모아 놓은 경전이

다. 이는 세계 종교 역사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서사에 초점을 맞춘 문헌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며, 비구니 승단의 종교적 경험과 열망을 담은 자료이기도 하다(Blackstone, 1998: 1). 여성 출가자의 애착, 고통, 죽음, 행복에 대한 관점을 시적으로 녹인 결과물이며,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물론 깨달음의 경험까지 낱알이 드러내는 문헌이다(Meill, 2020: 2).

여성 출가자들의 출가 전 사회적 신분을 보면, 전체 60%에 가까운 장로니들이 상류계급에 속했다. 왕가 또는 귀족 가문이 23명, 대부호 가문이 13명, 유명한 브라만 가문이 7명, 별로 유명하지 않은 브라만 가문이 9명, 가난한 브라만 가문이 2명, 이외의 계급 출신이 4명, 계급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11명, 기녀가 4명이다(Horner, 1930: 167-168). 이를 통해 왕가의 가문부터 기녀에 이르기까지 신분과는 상관없이 자유로운 출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시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출가자들의 출가 동기도 드러나는데, 붓다의 가르침에 감화되어 자발적으로 출가한 수행자는 34명(47%), 처해있던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고 수동적으로 출가한 수행자는 39명(53%)로 나타난다. 수동적인 출가동기는 근친자의 출가, 근친자의 죽음, 결혼의 실패, 생활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Lee, 2010: 3-22).

수행의 방법도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여성 출가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깨달음에 도달하는데, 붓다의 설법을 듣고 바로 정각(正覺)을 이룬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병들고 더럽고 부패한 것으로 집적의 몸을 관찰한 경우, 일곱 깨달음 고리를 닦은 경우, 네 가지 진리를 닦은 경우,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을 닦은 경우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는 각각 부정관(不淨觀), 칠각지(七覺支), 사성제(四聖諦), 팔정도(八正道)를 기반으로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수행의 구체적 결과는 시구의 표현들로 같음할 수 있는데, 이는 대체로 비슷하거나 동일한 표현으로 기술되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수행자들의 성취 결과를 분류해볼 수 있다. 최소한 세 명 이상이 같은 표현으로 수행의 결과를 묘사한 것을 대상으로 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테리가타』에 드러난 수행자의 수행 결과 분류
<Table 1> Classification of Practice Results of Nuns Revealed in *Therīgāthā*

수행 결과	장로니의 이름
생사로부터 해탈되고 존재의 통로가 제거됨, 다시 태어나지 않음, 최후의 몸을 얻음	비라, 우빠사마, 못따, 젠티, 다른 옷따마, 옵비리, 쑥까, 빠따짜라, 고탓미, 쑤마 지바감바바니까, 이씨다씨, 쑤메다
깨달은 님의 교법이 실현됨	앗다까시, 멧띠까, 아바야, 싸마, 다른 싸마, 밧테씨, 밧따갈리, 옷따라, 씨쑤빠짜라, 밧다, 짜빠
어둠의 다발을 부숨	뿐나, 쫓따, 옷따마, 쉐라, 쏘마, 케마, 비자야, 옷따라, 빨라, 우빨라반나

<표 1> 『테리가타』에 드러난 수행자의 수행 결과 분류 (계속)
 <Table 1> Classification of Practice Results of Nuns Revealed in *Therigatha*

수행결과	장로니의 이름
세 가지 명지를 이룸	멧띠까, 서른 명의 장로니, 찢다, 쭈자따, 씨쭈빠잘라, 밧다, 뽀니까, 짜빠, 쏘다리
명예를 여임	뭇따, 뗏사, 뗏따, 바드라, 난뎃따라, 쭈마 캄마라디따
열반을 실현함	디라, 아바야의 어머니, 밧다 까빨라니, 사꿀라, 끼사 고탓미
마음이 해탈됨	담마, 씨하, 뗏따깔리, 쏘나, 빠따짜라, 쏘다리
적멸에 들었음	쭈마나, 쏘다리 난다, 굿따, 웃따라, 아노빠마, 우빠잘라
탐욕이 지멸함	테리까, 쭈마나, 쏘다리

이와 같이 분류해 볼 때, 『테리가타』에 등장하는 상당수의 여성 출가자들은 수행을 통해 상당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덧붙여, 『테리가타』를 영역한 리스 데이비스(Rhys Davids)는 수행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분석한다면, 정서적인 차원에서 빛을 경험한 자가 12명, 통찰을 경험한 자는 8명이다. 느낌의 차원에서는 행복을 경험한 자가 5명, 차분함과 평온함과 만족을 경험한 자가 12명, 평화와 안전을 경험한 자가 11명이다. 의지에 대해서는 극기를 경험한 자가 14명에 달한다. 진실에 도달한 자 8명, 최상의 선에 도달한 자 1명, 최고의 기회에 도달한 자 1명, 정리된 삶에 도달한 자 2명, 최고의 승가를 이룬 자 6명, 알맞은 작업에 도달한 자 5명이다.”(Davids, 1980: 36-37)

여성의 출가와 수행이 쉽지 않았을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승한 결과를 만들어낸 수행자들의 과정과 노력에 세부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여성의 삶에 존재하는 다양한 고통의 양상을 중심으로 『테리가타』에 드러난 구체적인 수행의 장면 및 수행승들의 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IV. 여성의 수행과정과 특징

『테리가타』에 나타나는 여성 출가자들의 수행과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수행을 통한 개인적 맥락에서의 과정과 성과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맥락에서의 과정과 성과이다. 여성 수행자는 수행을 통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성과는 물론 사회적인 존재로서도 성장을 거두었다.

1. 여성의 수행과 개인적 맥락의 성과

개인적 맥락에서의 수행과정과 성과는 여성으로서 몸에 대한 성찰로 요약할 수 있다. 여성 수행자들은 병들고 부패하는 육체의 고통과 죽음을 통찰하였고, 자신의 몸에 대한 시각마저 새롭게 역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다. 『테리가타』에 등장하는 여성 출가자들의 수행 장면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부정관(不淨觀)이다. 아바야(Abhayā) 장로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발 바닥에서부터 머리카락의 위에 이르기까지 부정(不淨)하고 악취가 풍기는 이 몸을 자세히 관찰 하십시오.”(Jeon, 2017: 114-115; Thī. 33)라고 하며, 쏘다리난다(Sandarīnanda)는 붓다로부터 “병들고 부정하고 부패하는 집적의 몸을 보라, 마음을 통일하여 정립하고 부정에 대해 마음을 닦으라.”(Jeon, 2017: 131; Thī. 82)는 가르침을 듣고 나서 “안팎으로 이 몸이 있는 그대로 보였다.”, “몸을 싫어하여 떠나, 내적으로 사라져서, 방일을 여의고 결박을 풀었으니 적정에 들어 적멸을 성취했다.”(Jeon, 2017: 132; Thī. 86)고 설한다.

이들은 단지 몸의 부정함을 관찰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다. 몸의 소멸, 즉 죽음에 대한 통찰도 수행의 중요한 결과가 되었고, 주로 가까운 가족의 죽음이 그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읍비리(Ubbiri) 장로니가 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붓다로부터 “읍비리여, 자신을 알아라. 팔만사천의 동일한 이름의 지바가 이 화장터에서 다비(荼毘)되었으니, 그들 가운데 누구를 애도하는가?”(Jeon, 2017: 121; Thī. 51)라는 가르침을 듣는다. 그녀는 이를 통해 몸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빠따짜라(Paṭācārā)와 오백 명의 장로니들이 나눈 대화에도 등장하는데, 아들을 생각하며 울부짖는 오백 명의 장로니들에게 빠따짜라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 설한다. 죽음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이곳에 와서,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이곳에서 떠난 것”이며, “오는 것처럼 갔으니 거기에 어떤 슬픔이 있겠는가”(Jeon, 2017: 145-146; Thī. 129-130) 라고 표현한다. 이처럼 질병의 고통과 죽음을 깊이 느낀 여성에게,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 곳이며[無常, anicca] 고통[苦, dukkha, 불만족]으로 이해하는 초기불교의 가르침은 더 설득력있게 여겨졌을 것이다(Chakravarti, 1996).

특히, 『테리가타』의 여성 수행자들이 보여주는 부정관은 구체성과 현실성을 지니고 있다. 『테라가타(Theragāthā)』 역시 부정관의 수행이 나타나지만, 비구의 부정관은 주로 묘지에 있는 시체를 대상[navasivathika]으로 하는 것이 자주 나타나는 것에 비해, 비구니의 부정관은 자신의 육체를 대상[paṭikūlamānasikāra]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Blackstone, 1998: 69).

또한 『테리가타』의 여성 수행자들은 수행을 통하여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는 시각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였다. 쑤바 지바감바바니까(Subhā jīvakambavanikā)는 몸에 대한 부정관(不淨觀)을 통해 대상화된 여성상에서 벗어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녀는 숲속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길을 막아선 악한으로부터 눈이 산중의 암사슴을 닮아 감각적 욕망을 일으킨다는 희롱을 듣는다. 그녀는 자신의 안구를 뽑아주며 “자, 당신을 위해 눈을 주니 가지시오.”(Jeon, 2017: 226; Thī. 396)라고 한다. 악한은 이에 즉시 탐욕을 잃고 용서를 빌게 된다. 쑤바는 자신의 육체가 젊고 아름다운 육체로 칭송받는 것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욕신은 병들고 파괴되고 부패되는 것이라며 생노병사(生老病死)의 고통을 설하였다. 이는 자신을 향해 탐욕을 품는 사람에게까지 영감과 교화를 전하는 사례(Choubey, 2019: 6)로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초기경전인 『숫타니파타』에서 바라보는 몸의 관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여성 출가자들은 자신의 몸을 부정관의 수행 대상으로 삼았고 이를 토대로 열반에 이르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몸에 대한 욕망에서 떠나야 한다. 이 세상에서 욕망과 탐욕을 떠난 그 지혜로운 수행승만이 불사와 적멸, 곧 사멸을 뛰어넘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다. 인간의 이 몸뚱이는 부정하고 악취를 풍기며, 가꾸어지더라도 온갖 오물이 가득 차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하건대 거만하거나 남을 업신여긴다면, 통찰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Jeon, 2004: 156-159; Sn. v. 206)

이뿐 아니라, 열반에 이르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상좌부불교의 주석문헌 중 하나로 꼽히는 『위숫티막가(Visuddhimagga, 清淨道論)』는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수행하는 자가 얻는 이득을 제시한다.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하면, 삶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고, 고통에 대한 인식과 자아가 아닌 것에 대한 인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갈애와 집착에서 벗어나, 삼법인에 대한 통찰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들은 두려움과 어리석음으로부터 해방된다(Nāṇamoli, 1976: 236; Vism. 239).

『테리가타』의 여러 수행자들은 이와 같이 삶에 닥친 죽음이라는 현실을 통해 무상을 깨달았다. 즉, 죽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통해 해탈에 접근한 것이다. 출가하기 전, 세속생활에서 이미 불행을 경험한 여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없애 주기 위한 붓다의 가르침을 마음 속 깊이 받아들이고, 수행에 힘쓰게 되었다(Wijayaratna, On trans., 1998: 189). 차크라보티(Chakraborty)는 이러한 여성의 수행이 주체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한다.

“본질적으로 가부장적이며 여성의 발언의 신뢰성 자체를 의심하던 사회에서 여성 출가자들이 자신의 생각에 권위를 더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여성 출가자들의 주체적인 노력 덕분이었다. 여성 출가자들의 절절한 독백 속에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녀들은 붓다의 설법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닌 자기 체험을 통한 깨달음을 시도했다는 사실이다.”(Chakraborty, 2018: 40)

초기불교시대의 여성들은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 붓다의 가르침을 체험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러 불교 경전에서 여성은 유혹하는 자의 위치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테리가타』는 오히려 남성을 유혹자의 위치로, 여성을 유혹에 굴하지 않는 존재로 그리고 있다. 일종의 ‘역할의 전복’이 일어난 것이다(Rajapakse, 1995: 16). 케네스 로크(Kenneth A. Locke)는 『테리가타』의 여성 수행자들에 대해, 자기 몸의 수행에 집중하여 남성에 대해 성적으로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테리가타』에 남성의 몸이나 성관계에 대해 생각하며 혼란스러워 하는 비구니의 모습은 묘사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육신에만 집중한다. 『테라가타(Theragāthā)』에 등장하는 다수의 비구들이 여성을 향한 육체적 욕망과 고군분투하는 과정 속에서 자유를 얻지만, 『테리가타』의 비구니 중 남성에 대한 비슷한 욕망과 씨름하는 자는 없다. 그러나 이 두 경전 사이의 유사점이 존재한다. 세상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여성의 몸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여성 출가자는 혐오를 내재화하였고, 남성 출가자는 그 혐오를 외재화 하였다.”(Locke, 2004: 278)

여성이 유혹자가 아닌 유혹에 굴하지 않는 당당한 수행자로 위치하며, 자기 자신을 수행을 중심으로 삼는 결연한 태도는 여성이 성의 대상화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처럼 여성 수행자들은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 겪는 괴로움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주요한 원인으로 승화시켰다. 늙어가는 육체, 소중한 타인을 잃는 고통이란 절실한 경험은 실재하는 현상을 더욱 깊게 이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2. 여성의 수행과 사회적 맥락의 성과

여성 출가자들은 개인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동시에, 여성에 부여된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테리가타』 초반에 등장하는 뭇따(Muttā) 장로니의 기술은 하나의 시구로 되어 있어 지극히 짧지만 이러한 시대사회적 배경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내용은 “세 가지 굶은 것로부터, 절구로부터 공이로부터 그리고 곱사등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잘 해탈되었고 훌륭하게 해탈되었다.”(Jeon, 2017: 106; Thī. 11)는 것이다. 『테라가타』의 주석서에 따르면, 뭇따는 가난한 바라문의 딸로 태어났다. 부모는 그녀가 나이가 들자 등이 굶은 장애를 가진 바라문에게 주어 버린다. 그러나 가정생활에 적응하거나 안착하지 않고, 남편과의 가정생활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출가하여 위빠사나 수행을 시작한다. ‘절구’와 ‘공이’, 그리고 ‘곱사등이 남편’은 가난한 바라문의 딸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숙명적인 삶, 그리고 수동적인 아내의 삶에 대한 비유이다(Back, 2007: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운명에서 벗어나 원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수행과 정진을 향한 의욕이었을 것이다. 전통적인 가족 체계로부터 벗어나

출가자의 삶을 선택한 것만으로도 그녀는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여성을 향한 차별적 시각이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쏘마(Somā) 장로니와 우빨라반나(Uppalavanna) 장로니, 그리고 끼싸고따미(Kisāgotami) 장로니의 기술이다. 쏘마는 악마로부터 “두 손가락의 지혜를 지닌 여자는 지혜를 성취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지만, “최상의 진리를 보는 자에게 지혜가 항상 나타난다면 여성의 존재가 무슨 상관이나.”(Jeon, 2017: 124; Thī. 61)며 반박한다. 우빨라반나는 “우리 두 사람 어머니와 딸이 한 남자를 남편으로 삼았으니, 끔찍하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은 부정한 것, 악취나는 것, 형극이다.”라는 표현이 기술되어 있다(Jeon, 2017: 176; Thī. 225). 잃어버렸던 자식을 알아보지 못해, 아들을 남편으로 삼게 되고 자신의 딸과 아들까지 혼인 관계로 엮이는 근친상간의 비극을 경험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감각적 쾌락을 성찰하여 출가를 결심하고 수행에 정진하여 “깨달은 님의 교법이 실현되었다.”(Jeon, 2017: 177; Thī. 228)고 선언한다. 마지막으로 끼싸 고따미는 “여자라는 존재는 괴로운 것이라고 사람을 길들이는 님께서 말했으니, 누군가 남편을 공유하는 것도, 한 번 아이를 낳은 것도 괴로움이다.”(Jeon, 2017: 173; Thī. 216)라고 밝힌다. 당시의 여성으로 태어나 당연히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일부다처제 및 출산과 양육을 명확하게 괴로움(dukkham)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은, 여성의 수행이 단지 개인적 존재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각성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졌던 삶의 형식을 괴로움으로 규정하고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남은 삶은 성별과 상관없이 오직 수행자로 살아가겠다는 단호한 결심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부가된 여성으로서의 고통을 견디고 결국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여성 출가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삶에서 고통과 역경은 삶의 진정한 배경으로 기능했음을 드러낸다(Rajapakse, 1995: 25). 삶에 주어진 역경과 고통을 통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통을 통해 삶의 본질을 성찰하며 삼법인이라는 진리에 접근하였다. 출가 자체가 당시의 문화로서는 성별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Blackstone, 1998: 117)이었지만, 여성 출가자들은 결국 출가를 통해 여성으로서 받아야만 했던 사회적 억압이라는 족쇄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켰다. 당시 여성의 처지가 사회적으로 불평등했던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출가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Sarvesh, Shanker & Alam, 2021: 96).

또한 『테리가타』의 장로니들은 개인적 깨달음이나 성장에만 멈추지 않았다. 가족 안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여성이라는 존재가 서로 연대하는 주축으로 기능하였다. 윗따마(Uttama)와 밧데씨(Vaddhesi)는 출가와 수행을 위해 다른 여성 출가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음이 드러나 있다. 윗따마는 “믿을 만한 수행녀에게 내가 찾아갔는데 존재의 다발과 감각의 영역과 인식의 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나에게 주었다.”(Jeon, 2017: 118; Thī. 43)고 하였고, 출가한지 25년이 넘도록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했던 밧데씨(Vaddhesi)는 “믿을만한 수행녀에게 내가 찾아갔는데 존재의 다발과 감각의 영역과 인식의 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나에게 주었다.”(Jeon, 2017: 128; Thī. 69)

라고 설명한다.

여성 스스로가 사회적 지위나 존경을 얻기 어려운 시대였지만, 많은 여성들이 출가를 했고 이들은 서로의 실질적인 문제를 도왔으며, 수행자로서의 고군분투를 응원하는 지지 네트워크를 형성했다(Halls, 2002: 12). 특히, 마하빠자빠띠는 여성 수행자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그녀는 동료 출가자에 대한 자애와 존경을 아끼지 않았다. “이것이 최후의 몸으로, 태어남으로 인한 윤회는 부수어졌으니, 이제 다시는 윤회하지 않습니다. 분발하며 노력하여 항상 용맹정진 하니, 화합된 제자들을 봅니다. 이것이 깨달은 님들에 대한 예경입니다.”(Jeon, 2017: 155; Thī. 161) 이제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는 열반 선언은 함께 연대하는 여성 출가자들에 대한 존경과 함께 기술된다. 여기에서 수행의 결과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함께 연대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 출가자들은 오직 같은 성별인 여성 출가자들에게 연대하였을까? 『테리가타』를 통해 당시의 여성 출가자들은 신분과 나이를 초월하여 붓다의 설법을 전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뽀니까(Punika) 장로니는 물건을 하녀라는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바라문과의 대화를 통해 그를 가르침과 불교 상가에 귀의시킨다(Jeon, 2017: 180-184; Thī. 236-251). 또한 로히니(Rohiṇi) 장로니는 본인의 아버지를 교화한 것으로 설명된다(Jeon, 2017: 190-195; Thī. 271-289). 이들은 신분상의 차별, 성적 억압, 가족 체계라는 명백한 위계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앙굿따라니까야』에는 이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어 있다. 왜냐하면 출가 이후에는 이전 신분, 계급과 상관없이 출가자로서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빠하라다여, 예를 들면 강가 야무나, 아찌라와띠, 사라부, 마히와 같은 큰 강들이 큰 바다에 이르면 이전의 이름과 성을 버리고 큰 바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ㄸ샤뜨리야, 바라문, 와이사, 수드라의 네 가지 계급이 여래가 선언한 법과 율에 의지해서 집을 나와 출가하면 이전의 이름과 성을 버리고 사까의 아들 사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 빠하라다여, ㄸ샤뜨리야, 바라문, 와이야, 수드라의 네 가지 계급이 여래가 선언한 법과 율에 의지해서 집을 나와 출가하면 이전의 이름과 성을 버리고 사까의 아들 사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이것이 이 법과 율의 네 번째 경이롭고 놀랄 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Daelim, 2017: 130-131; AN. IV. 198)

인간의 평등을 강조한 붓다의 설법은 딸들을 수치심으로부터 구하고, 아내를 평등에 가까운 위치로 끌어올리고, 과부를 비참한 고통으로부터 구해냈다(Dewaraja, 1981: 15). 그들은 타인의 요구에 의한 삶을 살지 않았다. 승단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서로를 도우면서도, 자기 자신의 성취에 깊이 집중하였다(Blackstone, 1998: 117). 『테리가타』에 드러난 모습 그대로, 신분과 성별을 뛰어 넘어 붓다의 설법을 전하며 불교의 확장과 타인의 성장에 기여했다.

V. 결 론

지금까지 『테리가타』에 드러난 여성 수행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테리가타』는 당시 여성 출가자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얼마나 철저히 믿고 따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며, 장로니들이 출가하게 된 가장 강력한 동인은 사성제(四聖諦) 중 고제(苦諦)에 대한 자각이었음을 확인하게 된다(Lee, 1993: 483). 여성 출가자들의 ‘몸을 가진 존재로서의 고통’, ‘관계를 상실하는 고통’, ‘사회적 차별과 억압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차별과 억압이라는 사회적 고통 속에서 깨달음의 길로 향하는 인간 본연의 숭고함을 발견할 수 있다. 여성을 동등한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차별하던 시대, 진리에 대한 갈망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사회적, 성적 억압과 차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함은 물론 타인과의 강력한 연대의식까지 발생시킴을 볼 수 있었다. 수행자로서의 성취란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 윤리적인 삶의 기준, 자신 스스로의 경험과 깨달음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Olivia, 2017: 1). 그러므로 『테리가타』와 같은 기록이 있는 이상, 여성이 깨달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가능 여부를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Gross, 1992: 115).

초기불교의 시대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으나 여전히 잔존하는 사회적 차별의 문제에 대해 불교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불교에 전념한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텍스트를 읽는 것이 아니라, 현 사회에 대응하는 철학으로서 그것을 해석하여 본래의 정신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Kurihara, 2015: 43). 차별과 억압이 지배적이던 시대,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한 여성 출가자들의 수행 장면은 2천 5백여 년이 흐른 지금 성별과 지위를 떠나 모든 수행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붓다의 가르침에 귀의한 여성 출가자들의 생생한 수행 여정은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도 고통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스스로의 삶을 해방과 평등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의 가치를 환기시킨다. 『테리가타』는 여성의 서사이지만, 수행자로서의 경험은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인간으로서의 서사 그 자체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Choubey, 2019: 7-8). 그리고 이는 성별, 나이, 인종, 국적, 장애여부 등 다양한 이유로 벌어지는 현대사회의 많은 차별경험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분명한 교훈으로 기능한다.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장면에서 불평등과 차별, 억압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렇기에 계급 사회를 탈피하고 현실적인 수행을 강조하였던 붓다의 가치관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붓다는 당시의 계급적인 사회관을 탈피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초기불교는 가르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체험하는 것(Jeong, 2018, 68)”임을 주지해야 할 이유이다. 이를 위해 붓다가 설법한 평등주의 가치관의 본질적인 부분을 담아내고 적용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 및 명상 프로그램의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여성 출가자의 수행상을 기록한 문헌으로서의

『테리가타』가 아닌, 범시대적 교훈을 담은 문헌으로서의 『테리가타』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References

[Abbreviations]

AN : *Aṅguttara Nikāya*, PTS(Pali Text Society).

SN : *Saṃyutta Nikāya*, PTS.

Sn : *Suttanipāta*, PTS.

Thī : *Therīgāthā*, PTS.

Vism : *Visuddhimagga*, PTS.

[Primary Sources]

Aṅguttara Nikāya

Saṃyutta Nikāya

Suttanipāta

Therīgāthā

Visuddhimagga

[Secondary Sources]

Anand, A. & Bhura, A. K. (2016). Woman and Nibbāna: An Analysis of Early Buddhist Texts. *Journal of Dharma*, 41(1), 72-73.

Badge, U. (2014). Essential elements of human rights in Buddhism. *Journal of Law and Conflict Resolution*, 6(2), 34.

Blackstone, K. R. (1998) *Women in the footsteps of the buddha - Struggle for Liberation in the Therīgāthā*. London: Curzon Press.

Chakraborty, K. (2018). Radical grace: Hymning of ‘womanhood’ in Therīgāthā. *Feminist Theology*, 26(2), 40.

Chakravarti, U. (1996). *Social dimensions of early Buddhism*. New Delhi: Munshiram

- Manoharlal Publishers.
- Choubey, A. (2019). Voices from the Yore: Therīgāthā Writings of the Bhikkunis. *The Indian Review of World Literature in English*, 5, 6.
- Davids. R. (1980). *Psalm of the Early Buddhists*. London: Pali Text Society.
- Dewaraja, L. S. (1981). *The position of women in Buddhism*. Kandy: Wheel Publication
- Farrer-Halls, G. (2002). *The feminine face of Buddhism*. Illinois: Quest Books.
- Fischer, A. R. & Holz, K. B. (2010). Testing a model of women's personal sense of justice, control, well-being, and distress in the context of sexist discrimin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4(3), 297.
- Gross R. M. *Buddhism after patriarchy: a feminist history, analysis, and reconstruction of Buddhism*. 옥복연 옮김 (1992) 불교 페미니즘. 서울: 동연.
- Grünhagen, C. (2011). The female body in early Buddhist literature. *Scripta Instituti Donneriani Aboensis*, 23, 104.
- Hong, H. J. (2020). *A study on Feminism in Early Buddhism-Analysis based on Nikaya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gwon University.
- Horner, I. B. (1930). *Women under Primitive Buddhism: laywomen and almswomen*. Delhi: Shri Jainendra Press.
- Jeon, H. J. (1986).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bikkhuni sangha - Focusing on the Eight Chief rules.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11, 340.
- Jeong, J. Y. (2018). Limitations and Significance of Early Buddhist Scriptures. *Journal of eastern-asia buddhism and culture* 35, 68.
- Krieger, N. (1999). Embodying inequality: a review of concepts, measures, and methods for studying health consequences of discrimina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29(2), 301.
- Kurihara, T. (2015). Gender equality of Buddhist thought in the age of Buddha. *The Journal of Oriental Studies*, 25, 43.
- Lee, C. S (1993). Women's Enlightenment in Therīgāthā,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18, 483.
- Lee, K. J. (2010). Motivations for the Renunciation of Buddhist Nuns in Ancient India - On the Therīgāthā and its Atthakatha. *Journal of Korean Women's philosophy*, 14, 3-22.
- Lee, M. J (2012). Therīgāthā, Women's Practice and Realization: Focusing on Therīgāthā-atthakathā.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 Locke, K. A. (2004). Images of the Female Body in the Theragāthā and the Therīgāthā. *Hsi Lai Journal of Humanistic Buddhism*, 5, 278.

- Meill, K. P. (2020). Diversity in the Women of the Therīgāthā. *Mindfulness Studies Theses*, 29, 2.
- Ñāṇamoli, Bhikkhu. trans. (1976). *The Path of Purification (Visuddhimagga)*. London: Shambhala Publications.
- Ok, B. Y. (2015). Reinterpretation of Misogynistic Doctrines in Buddhist Scriptures: From the Perspective of Buddhist Feminism.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31(1), 104.
- Olivia, N. (2017). Women Buddhist Mas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Dharma Studies*, 5(1), 1.
- Sarvesh, T., Shanker Singh, R., & Alam, T. (2021). Dalit Women in History: Struggles, Voices, and Counterpublics. *Journal of International Women's Studies*, 22(10), 96.
- Song, J. Y. (2021). *A Study on The Eleventh Great Disciples of the Buddha's bhikkuni*.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 Vijitha Rajapakse (1995). Therīgāthā: on Feminism, Aestheticism and Religiosity in an early Buddhist verse anthology (Part I), *Buddhist Studies Review*, 12(1), 16.
- Wijayaratna, Mohan. *Les Moniales bouddhistes: naissance et developpement du monachisme feminin*. 온영철 옮김(1998). 비구니 승가. 서울: 조계종 교육원
- Won, S. H. (2014). *A Study on bikkhni Arahat at the time of Buddha*.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 각목 옮김 (2009). 상윳따니까야, 1권. 초기불전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Kakmook. (2009). *Samyutta nikāya*. Ulsan: Early Buddhist Text Research Center.
- 대림 옮김 (2007). 앙굿따라니까야, 4, 5권. 초기불전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Daelim. (2009). *Anguttara Nikaya*. Ulsan: Early Buddhist Text Research Center.
- 백도수 역주 (2007). 위대한 비구니: 장로니게 주석, 열린경전 불전주석연구소. (Translated in English) Baek, D,S (2007). *Therigatha-atthakatha (Paramatthadipani VI)*. Cheonan
- 전재성 옮김 (2004). 슛타니파타, 한국빠알리성전협회. (Translated in English) Jeon, J. S. (2017). *Sutta-Nipāta*. Seoul: Korea Pali Text Society.
- 전재성 옮김 (2017). 테리가타-장로니게경, 한국빠알리성전협회. (Translated in English) Jeon, J. S. (2017). *Therīgāthā*. Seoul: Korea Pali Text Society.
- 전재성, 옥복연, 류경희, 김정희, 우혜란, 조승미 (2016). “초기불교의 반페미니즘적 사유에 대한 고찰”. 김종수 엮음. 불교와 섹슈얼리티. 경기: 한울엠플러스. (Translated in English) Jeon. J. S., Ok B. Y., Ryu. K. H., Kim. J. H., Woo. H. L., & Cho. S. M. (2016) A Study on Anti-Feminist Thoughts in Early Buddhism. Kim (ed.). *Buddhism and Sexuality: Women meet Buddha*. Kyung-gi: Hanul Mplus.